

제10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안동권문 장려상 수상

제10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가 대전시 중구 뿌리공원 일대에서 10월 5일에서 7일까지 2박 3일간 개최되었다.

안동권씨는 전국 문중 입장 퍼레이드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안동권씨 대전총친회(회장 권용기)에서는 대전지역 60여명의 족친들과 대종회 권건중 사무총장 등과 점심을 함께 한 후 행사에 참여했다.

대회 첫날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세차게 내리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각 문중에서 1000여명의 인파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오후 2시에 전국 문중 입장 퍼레이드가 시작되자 급빛 잔란한 갑옷을 입고 칼을 찬 권율장군(장군역 권용락, 추밀공과 34세)은 10여명의 군사들과 함께 등장해 많은 참가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단연 돋보였다. 안동권문의 행진이 시작되자 장군의 위엄은 모두 담당했다.

단상 앞을 지날 때는 모든 취재 카메라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장군이 행진할 때마다 방송 취재 요청으로 몇 번이나 행진을 멈춰야만 했다.

참석자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갈채가 이어졌다. 대전총친회에서는 권용기 회장을 중심으로 권동원 참의공과 사무이사 등 많은 족친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회가 기간 내내 '가훈 써주기' 행사를 전개해서 많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대전총친회는 '가훈 써주기'와 함께 '충장공 권율 도원수는 민족의 영웅'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서명운동'이라는 현수막으로 부스를 휘감고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대종회에서는 권행완 편집국장, 권기성 이사, 권순용 전국청장년 사무국장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쳤다.

권용기 회장의 부인 남편자 여사 등은 안동권문의 부스를 찾는 방문자들에게 따뜻한 한 잔의 커피로 몸을 녹일 수 있게 훈훈함을 베풀어 주었다.

대회 3일 동안 전국에서 약 22만여명이 뿌리공원을 방문했다.

효문화뿌리축제는 해가 더해 갈수록 점점 전국대회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중이며 매년 10월경에 대전에서 개최하고 있다.

편집국장 권행완

제10회 효문화뿌리축제 이모저모



문중 퍼레이드에 참가한 권율장군과 함께.



권율장군의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권기성 이사.



가훈 써주기와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서명운동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모습.



남명자여사(왼쪽 두 번째), 권용기 대전총친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어깨띠를 두른 권기성 이사, 권건중 사무총장(맨 오른쪽).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서명운동 현수막으로 안동권씨 부스를 휘감았다.



'충장공 권율장군은 민족의 영웅입니다' 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권탁, 선조의 한글교서 들고서 왜적에 포로가 된 백성 100여명 구출

지난 10월 9일은 한글날이었다. 조선 국왕들의 교서는 거의 대부분이 한문이었다.

그러나 선조는 임진왜란 중에 한글 교서를 내린다. 보물 제951호 "선조국문유서(宣祖國文諭書)"가 그것이다. 임진왜란 때인 1593년(선조 26) 선조가 피난하여 의주에 있을 적에 왜군의 포로가 된 백성을 회유해 돌아오도록 교서를 내렸다.

그때 조선의 백성들 가운데는 일본에 포로가 되어 왜적에게 협조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선조의 뜻을 받드는 장수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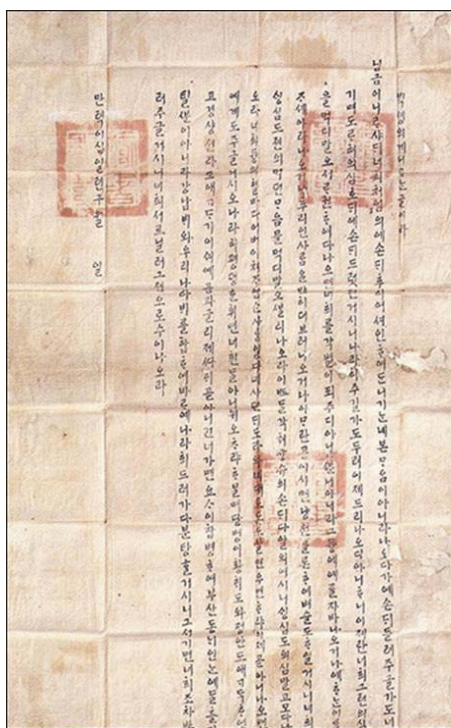
이에 벼슬 없는 선비로 지내던 권탁(1544-1593)은 "어찌 신하로서 죽기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할 것인가!" 하며 선산에서

김해로 와서 김해를 지키는 수성장(金海守城將)이 되기를 자청했다.

그리고 권탁(權卓)은 '선조국문유서'를 가지고 적진에 숨어 들어가 가서 왜군 40여명을 죽이고 포로가 된 우리 동포 100여 명을 구출하는 계기를 올렸다.

이 교서는 권탁의 후손들이 집에서 중요 유품으로 보관해 오다가 선조어사각이 건립되면서 어서각에 봉안하다 현재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교서는 임진왜란 당시 상황을 생생히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일 뿐더러, 모든 공격 문서를 한문으로만 기록하던 통례와는 달리 포로가 된 일반 백성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쓰인 점에서 국문학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평가이다.



선조가 포로로 잡힌 백성들에게 내린 한글교서 "선조국문유서"(부산시립박물관 소장)

권현인비 추모 참배단 중국 조장시 방문 이모저모



참배단 단장 권영성 상임부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안동권씨 대종회이자 한국을 대표하여 중국 조장시 대표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어서 권현인비 보호와 석류단지 및 한류타운 건설 계획에 대한 역성구의 브리핑, 한국과 중국의 가교역할을 했던 조장시 역성구 관광국 국장 추이명, 장사오통 역성구 의사과장, 역성구 의사처 국장 송진평, 우흥관광개발공사 총경리 임비아오(오른쪽 줄 왼쪽부터)



조장시 역성구 인민정부 청사 앞에서



추모 현수막 앞에서 대종회 참배단과 600년 동안 대대로 권현인비를 돌보고 있는 왕씨(오른쪽 두 번째) 영락제는 권현인비 서거 후 왕씨와 황씨 등 권현인비를 경호하던 명사들에게 권현인비를 지키게 했다고 한다. 수백 년 후 마침내 권현인비를 주변 일대는 전부 왕씨와 황씨 집성촌으로 바뀌었고 600여년이 지난 지금도 대대로 권현인비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 일종의 묘지인 셈이다. 이런 연유로 관리인 왕씨에게 아헌관을 부탁했던 것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는릉이어서 그런지 권현인비를 가서 소원을 빌면 복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릉에 가서 제사를 지낸 후 행사를 치르다고 왕거제(王居祭)는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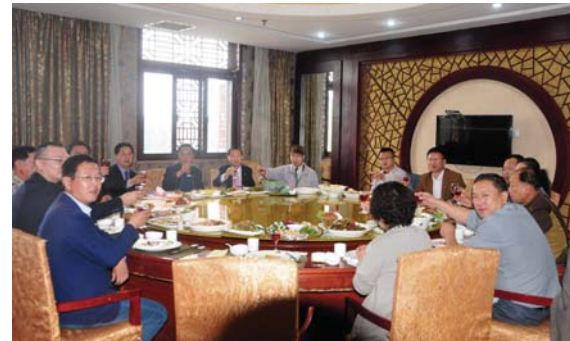
조출하지만 역사적인 추도식 봉행, 초현관 권영성 상임부회장(노란 도포) 등 대종회 참배단과 왕씨



천년 고목(수령 1500년) 청단나무 아래서



당나라 때 세워진 천년 고찰 청단사(靑檀寺) 입구를 배경으로



역성구 구장과 함께 점심만찬, 왼쪽 다섯 번째부터 단장 권영성 상임부 회장, 쓰수간 역성구 구장, 권태복 회장 등



공자 사후 제자들은 공자묘 옆에서 3년 동안 여묘살이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제자와는 달리 6년 동안 여묘살이를 했다. 그 현정이다.

용강서원 추향제 봉행



2018년 10월24일 11시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382번지 용강서원 추향제가 봉행되었다.

초현관 이승엽 고장문화원장, 이현관 오택진 음성향교 전교, 종현관 용강서원 고문 이재만, 대축 용강서원 부원장 정대채, 집례 용강서원 유사 이현규로 각각 분정하였다.

용강서원은 조선개국 초기 충신 충민공(忠愍公) 박순(朴淳)의 충의(忠義)사적을 기리기 위하여 그간 순절한 함경도 함흥 용흥강변에 세워져 순조연간에 사액 되었다.

영조 25년 1749년에 조상경(趙尙綱)을 추가로 배향하고 1800년 중건하면서 충민공의 고

조인 충정공 박서(朴犀)의 위패도 함께 배향했다.

고양에는 사액서원으로 행주서원(行州書院), 용강서원, 문봉서원이 있으며 권정택 대종회 부회장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현재 용강서원 원장으로 재임 중에 있다.

권정택 원장